



모두의학교

 SMILE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

무슨 학교인가요?

모두의학교는 **플랫폼** 이다!

새로운 **평생학습센터** 모델

시민이 학습의 **수혜자**에서 학습의 **주체자**가 되는
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장을 제공합니다



무슨 학교인가요?

공공성을 지닌 시민학교 플랫폼

- 공공성을 가진 시민학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
- 모두가 서로 배우는 배움방법론을 고민하는 실험연구소
- 시민 삶에 맞닿은 새로운 배움 프로젝트 공작소

공공의 거실

- 시민의 다양한 지식과 문화 향유 · 공유 · 창출의 장
: 공공의 거실을 상징하는 서재, 자료실이자 공유의 장, 도서관 공간 **모두의 책방**
: 전시, 포럼, 플리마켓 등 새로운 앙상블의 프로젝트 활동소

배움으로 모두가 연결되는 일상의 정거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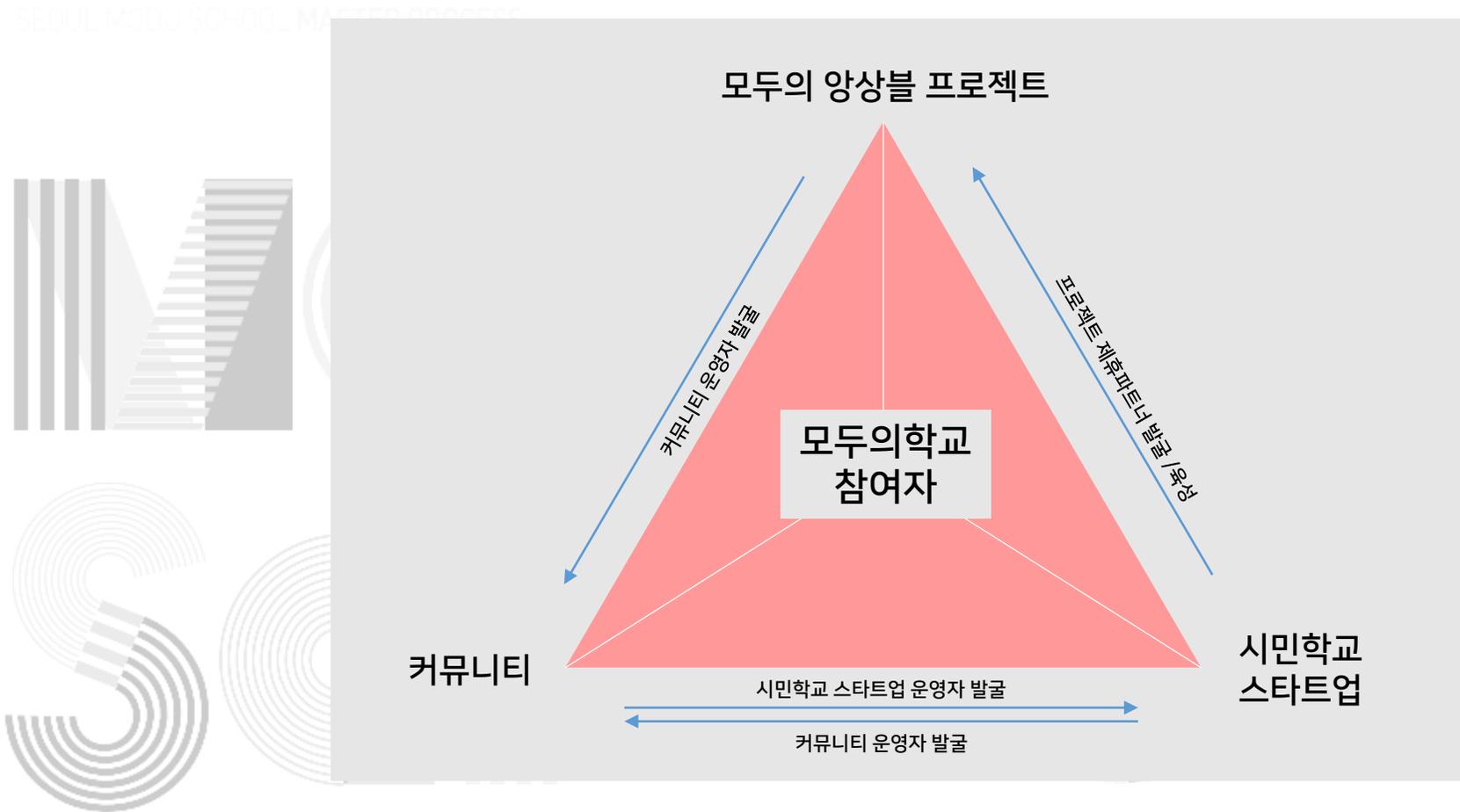
무엇을 배우는 학교인가요?

모두의학교

= 새로배움터 X 서로배움터

나와 우리를 새롭게 배우는 새로 배움터
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함께 배우는 서로 배움터

시민이 '새로 배움 새로 배움' 주인공이 되는 실험과 개발



시민이 '새로 배움 새로 배움' 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?



서로배움과 새로배움의 학습모델 개발

- 시민학교 스타트업 지원
- 모두를 위한 교육 디자인 툴킷 개발 및 전파



주체적 시민 역량의 발견 기회 제공

- 모두의 앙상블 프로젝트 기획·운영
-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



개방과 소통의 학습 플랫폼 조성

- 다양한 층위의 파트너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
- 참여자 맞춤형 멤버십 제도 운영
- 요구조사 및 피드백 체계 구축
- 온·오프 캠페인 전개



공공의 거실 제공으로 상호 학습

- 공유공간 조성 및 개방
- 커뮤니티 공간 지원
- 모두의 책방 운영





시민학교 스타트업 사업 소개



시민학교는 무엇인가요?

시민 누구나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

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**시민학교**

시민학교의 학습 콘텐츠는 생활의 **필요와 욕구에서 출발합니다**

시민 스스로가 만든 학습 콘텐츠를 또 다른 시민과 함께 **공유합니다**



시민학교는 무엇인가요?

배움과 가르침의 경계를 허무는 학교

시민학교 모디의 성과라면 모두의학교에서 프로젝트에서 만난
수많은 시민들의 숫자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,
바로 저희의 변화예요. 디자이너들끼리만 만나다 시민을 만나보니
그것 자체가 대단한 충격이자 훈련이었어요.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희가 배우는 거죠.
그래서 우리 시민학교 모디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에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.

- 3년차 자립단계 시민학교 '모두의디자인(모디)'의 신정원 대표



시민학교의 단계별 성장과정은?

예비시민학교단계



공공성/사회적 가치가 담긴 학습과정 설계

인큐베이팅 1년차

시범단계



공개 운영을 통한 핵심가정, 핵심가치 검증

정규단계



학교모델 정교화 학습방법 다양화

2년차

졸업 및 자립단계



모두의학교 파트너 성장 지원

3년차

- 프로그램 홍보 및 연구활동 공간 제공
- 주제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연구개발회의 및 컨설팅 지원
- 모두를 위한 교육 디자인 툴킷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
- 학교별 네트워킹



2020년 상반기 시민학교 스타트업 사업공고 안내

- ▶ **지원 주제 : 평생학습의 과정 또는 결과를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삶에 맞는 다양한 배움 주제**
- 지원 대상 : 시민학교 스타트업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**
 - * 1년 이상 운영 하였으며,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단위로 신청
- 선발 규모 : 예비시민학교 5개팀 내외**
- 지원 규모 : 학교별 2,500천원 내외**
 - * 상반기 운영에 대한 적부평가 후에 하반기 시범단계 지속운영 여부 결정



“

배움과 가르침의 경계를 오가며 성장하는 시민학교

”

여러분이 서로배움, 새로배움의 주인공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!